

현장 포커스

업계동향

(주) 카길애그리퓨리나

◆ 더위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섭취량 개선 프로그램 추구

가축 생산성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하절기에 현장 생산성 향상을 위해 특별한 사료 품질 강화 프로그램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하절기는 고온스트레스와 장마 등으로 인해 사료 섭취량이 줄어들고 사료가 쉽게 변질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가축의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농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여름철에 하절기 특수배합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한다.

(주)카길애그리퓨리나(대표: 이보균 www.cargillagripurina.co.kr)는 축종별 섭취량을 저하시키고, 농가의 생산성 저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여름철 대비책으로 매년 6월부터 하절기 특수 배합비 강화 서비스를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2014년도 여름철 특수 배합비강화 사료의 핵심은 “섭취량 개선” 및 “농장 회전을 극대화”의 개념으로 큰 체중으로 열 발산이 불리하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육돈과 모돈을 위한 특별 배합비 강화 프로그램이다. 특히, 영양소를 강화하고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를 개선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박종역 부장, 양돈 마케팅)

낙농용은 더위 스트레스 저감과 반추위 발효 효율 향상, 섬유소 소화율 향상, 미네랄/비타민 증량에, 비육우용은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번식 개선제 증량, 미네랄/비타민 증량에 초점을 둔 현장 프로그램이다. (안대봉 이사, 축우 마케팅).

정리: 장문백(편집위원장)

탐방보도

(주) 드라발 DeLaval

축산의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국내 낙농산업은 근래에 빠른 구조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낙농 목장 경영에 있어 그러한 변화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사육규모의 증가현상이며 그에 따른 착유노동의 자동화 추세가 본격화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국내에는 자동착유시스템(AMS)인 로봇착유기의 보급은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면서 2013년 현재 거의 100여 기에 달하는 로봇착유시스템이 국내 낙농목장에 보급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지의 편집진은 금번 국내 자동착유기의 보급을 선도하는 업체 중에서 스웨덴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드라발(대표: 박중수)을 탐방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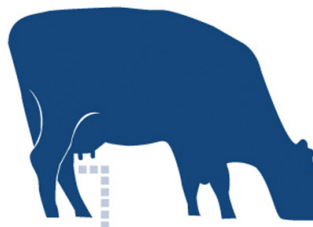
(주)드라발은 세계 최초로 착유기를 개발한 130년 역사의 세계 최대 착유기 제조회사이며, 자매회사인 테트라팩과 함께 전 세계 낙농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속가능한 낙농업으로 자연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최소화 하면서 보다 많은 인류에게 고품질 우유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기여 하는데 이념을 기반으로 지능형 낙농전략을 개발 구사함으로써, 전 세계 낙농가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그 현실화를 추구하고 있다. 즉, 목장의 현장에서 유질을 개선하고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자동화 장비 및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의 착유 중심 목장관리에서 낙농가의 수익성 관리 중심으로 이동을 가속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을 회사의 목표로 삼고 있다.

(주)드라발은 낙농목장에서 사용하는 착유용 장갑 및 앞치마부터 시작하여 착유설비, 급이시스템, 냉각장치, 분뇨처리시설, 유질개선제품, 동물복지설비, 로봇착유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목장의 생산효율과 수익을 증가시키면서 환경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고 동물 및 목장주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한다는 기업정신을 담은 다양한 낙농목장용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근래에 널리 인정받는 걸작은 수십 년에 걸친 개발로 상품화에 성공한 VMS 로봇착유시스템이다. 1년 365일 휴일 없이 착유를 실시해야 하는 낙농가의 부담을 해결해주는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젖소가 인력의 도움이 없이 착유기에 입장하고 로봇이 레이저와 카메라로 유두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착유컵을 부착하여 젖을 짜는 무인 착유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로봇착유기, 개체 이동장비와 냉각기, 자동사료급이기, 활동감지기 및 송아지 자동포유기, TMR 분배기 등 다



양한 장치와도 연동되어 우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특징을 가진다. 소위 ‘DelPro 통합 운영관리 프로그램’은 드라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동설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환경으로서 사용자가 각종 데이터를 편리하고 손쉽게 처리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끊임없는 R&D의 결과물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새로운 시스템은 ‘허드 네비게이터



Detects heat by measuring progesterone
Early detection of: silent heat, heat, pregnancy, abortion, follicular and luteal cysts, and prolonged anoestrus.

Detects mastitis by measuring LDH, lactate dehydrogenase
Early detection of acute Mastitis

Detects ketosis by measuring BHB, beta-hydroxybutyrate
Early detection of: subclinical ketosis, ketosis, metabolic diseases.
Herd Navigator also detects urea to help balance feed protein.

(Herd Navigator)’이다. 이 시스템은 덴마크의 진단/계측장비 전문업체 Foss사와 낙농기자재 전문업체인 드라발사가 합작하여 설립한 (주)Lattac에서 제작 공급하는 첨단 낙농 진단장비로, 축주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젖소 관련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 황체 호르몬을 측정하여 95% 이상의 발정 탐지
- 젖산 탈수소효소 측정에 의한 고정확도의 유방염 사전 탐지
- 베타하이드록시뷰티레이트(BHB) 측정에 의한 케토시스 탐지율 향상
- 사료 내 단백질 균형관리에 도움 주는 요소농도(MUN) 탐지
- 수정/유산 감정을 90%
- 황체/난포 낭종 탐지율 90% 등의 높은 성능을 가지고 우군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번식주기 단축, 유방건강 향상, 사료 내 에너지/단백질의 균형, 각종 비용 절감 등 사전에 방부터 사후처치 조연에 이르기까지 목장 경영을 효율화하고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 줄 미래형 첨단낙농을 겨냥한 진보적인 시스템이라고 평가 받고 있다.

정리: 장문백 (편집위원장)

